

도시사회의 이론과 실천, 한 도시학자의 성찰

정병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이 책이 출간되기 전 모 대학으로부터 ‘사회공간론’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부탁받아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이 강의는 도시, 지역 등 공간이 구성되는 과정과 구조에 대해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취하되, 공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구체적인 사회과정과 그 결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해보는 성격의 강의였다. 강의를 앞두고 필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아마도 이는 유사한 강의를 담당해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겪었을성싶은 부담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선 필자가 가지는 있는 지식이 일천할뿐더러, 강의를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워낙 방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함에서 오는 부담이었다. 물론 이러한 유의 내용을 담은 관련 참고문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도 일부는 꽤 깊이를 지닌 것이 사실이지만 대개는 공학적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의 범위, 관점 등에 있어서 제 각각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십상이었다.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여 강의를 진행하긴 했어도 당시 느꼈던 부담

감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책 『현대사회의 도시론』은 이 순간에도 어느 연구자가 나와 같이 강단에서 겪을, 또 이로 인해 그 강의를 수강하면서 같이 혼란을 겪을 관련 전공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이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범위의 방대함과 각 연구내용이 터하고 있는 인식론적 다양성에 비추어볼 때 그러하다. 저자가 주장하듯이 『현대사회의 도시론』은 한편에서 탐구의 대상으로서 ‘도시의 사회에 관한 논의’를, 다른 한편에서 그 대상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이론에 입각한 도시논의’를 포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이 책의 유용성을 더 한층 높이는 요소이지만, 그 반대로 전체 체계를 다소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서(書)에 대해 평(評)을 거론하고자 하는 것도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평가가 그러하듯이 책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와 필자의 의도에 대한 평가자의 오해와 고통이 끊임없이 개입하게 마련이어서, 일말의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책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고, 몇 가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약간의 지침을 주었으면 싶다.

2. 책의 구성에 관하여

이 책은 전부 제3부, 제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가 도시와 사회학과의 관계를 다루는 서론 격에 해당한다면, 제2부는 다양한 사회이론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있어왔던 도시에 관한 제반의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 제3부는 앞서 논의되었던 도시사회이론에 기초하여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의 역사적 변화와 오늘날 서울이 취하고 있는 삶의 정형들을 다각적으로 설명해보고, 혹 있을지 모를 대안적 실천을 모색해보는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1부는 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와 사회학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것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 부분은 도시를 둘러싼 제반의 개념과 일반적 논의를 소개하는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 특히 제1장의 논의 속에서 저자는 아마도 도시를 사회과학의 학문적 범주 속에 놓고, 도시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차원을 도출함으로써 이 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세우려 의도한 듯 여겨진다. 이 경우에 저자는 우선 자신이 터하고 있는 도시의 기본 개념들이 그간 사회학이 일반적으로 준거로 삼은 ‘공동체로서 도시’와 저명한 루이스 워스식의 ‘도시주의(urbanism)로서 도시’ — 즉 도시화의 과정에서 확립된 현대의 기술, 제도, 신념, 이데올로기 — 등 두 가지임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가지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는 도시는 그 구성차원으로 문화 차원, 사회조직 차원, 하부구조 차원 등 세 차원이 설정되었다. 여기서 제안된 개념들과 구성 차원이 이어지는 논의 속에서 적절히 용해되지 못하고 있음은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도시사회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의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제2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이론과 도시’라는 제하의 이 부분에서는 맑스와 베버, 뒤르케임을 축으로 하는 고전적 도시이론가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초 태동한 시카고학파의 생태주의 도시론, 베버의 도시 이론의 현대적 변용에 관한 논의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책은 단순히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르페브르, 카스텔, 하비를 축으로 하는 공간적 맑스주의자들의 선구적 급진도시 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의 포스트모던한 관점으로까지 거침없이 나아간다. 후자의 경우, 특히 포스트모던한 관점과 포스트모던 이후 도시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는 현대 도시사회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모습과 동학을 면밀하게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텍스트로부터의 상당한 진전이라 할 만하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가 지금에 와서 그리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이를 도시와 연관짓는 논의는 도시에 관한 국내 논의에서 새로운 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새로운 이론들이 제기하

는 주장,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시적 적용의 진위 여부나 경험적 타당성은 지속적인 논쟁의 장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일이나, 어쨌거나 기성의 텍스트가 보여주는 인식의 협소함으로부터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라 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연구의 깊이보다는 내용의 방대함이 이 책의 더 큰 특장(特長)이 되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한국 도시의 실재를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특히 ‘서울의 도시사회학’이라는 문제설정은 서울을 통해 한국 도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도의 압축성장을 겪었던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다양한 이론적 시각으로 반추해봄으로써 이론의 유용성을 가시화 함은 물론, 그러한 이론적 해석으로부터 실천적 함의를 끌어내보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리라. 근대화 과정에서의 서울의 모습을 놓고 다분히 에세이 투로 시작된 서울에 관한 논의(제10장 ‘지역으로서 도시’)는 포스트모던한 사회로의 서울의 재구조화에 관한 논의를 거쳐 오늘날 서울과 같은 발전주의 대도시가 갖는 딜레마를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자연히 논의의 궤적은 근대적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성찰, 다시 말해 성찰적 도시관리라는 실천적 대안으로 귀결되고 있다. 저자는 그 대안을 새로운 담론의 형성에서 찾고 있어 실천적 대안이 부재하기 쉬운 기존의 텍스트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물론 그 대안의 적실성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말이다.

3. 몇 가지 한계들

이 책이 지니는 기본적인 의의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제2부 사회이론과 도시에서 소개되고 있는 주요 도시 이론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저자의 자의성이 개재하고 있음을 지적해볼 수 있겠

다. 책의 구분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많은 도시이론들은 맑스와 베버, 뒤르케임으로 대변되는 고전 도시 이론가로부터 시카고학파로 대변되는 생태주의 도시 이론, 그리고 신베버주의와 신맑스주의로 요약되는 신도시사회학, 그리고 포스트모던 도시 이론으로 구분된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구분은 19세기 초반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근 200여 년의 기간 동안 각 이론의 생성과 사멸, 그리고 재탄생의 통시적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수긍할 바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 사이에는 보다 근원적인 일종의 인식론적 단절이 존재한다. 기실 18세기 계몽의 시기 이후 최소한 20세기 중반까지를 모던한 시대로 보는 데 별 다른 이견이 없다면, 고전적 이론으로부터 신도시사회학에 이르는 이론적 궤적은 사실상 모던한 도시 이론으로, 이들 이론에 대한 비판과 성찰은 포스트모던 이론으로 선을 긋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도시론』의 두 얼굴이 할 수 있는 도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서도 일정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이 책은 한편에서 인식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인식론에 따라 이루어진 존재에 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방법론/도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2부의 제3장 ‘고전이론가들의 도시론’이 이러한 서술구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 견주어보건대,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취하고 있는 구도 속에는 이론과 실제 사이에, 혹은 존재론과 인식론 사이에 종종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가령 제3부의 경우 제10장인 ‘지역으로서 서울’, 제12장 ‘서울의 포스트모던 도시성’, 제13장 ‘대도시 발전의 딜레마와 조망’ 등과 제11장 ‘서울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방법론’의 관계설정이 그러하다. 앞의 내용이 모던한 도시 모델로부터 포스트모던한 도시 모델로 이어지는 서울의 도시 발전과 그 딜레마를 중심으로 한 존재론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이러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론에 관한 인식론적 제언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구성으로만 보면 이 책 제3부의 구성은 존재론 사이에 인식론이 혼재되어 들어가 있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제2부 각 장의 구성은 인식론 전체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제8장 근대성과 도시로부터 시작하여 제3장에서부터 제6장으로 이르는 주요 이론을 모던 도시사회 이론으로 한데 묶고, 이를 이어지는 포스트모던 도시사회 이론과 구분함으로써 양자간의 인식론적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다. 마찬가지로 제3부 서울의 도시사회학의 경우에도 제11장 서울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후, 제10장 ‘지역으로서 서울’, 제12장 ‘서울의 포스트모던 도시성’, 제13장 ‘대도시 발전의 딜레마와 전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자가 서문에서 주장하였듯이 인식론과 존재론의 양면을 모두 규명하고자 하는 이 책의 취지에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책에서 도시개념과 관련해서도 저자 특유의 도시에 대한 실체적 개념이 부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피터 손더스(Peter Saunders)의 『도시와 사회이론』에 의해 강조된 대로 고전적 도시 이론으로부터 현대적인 도시 이론에 이르기까지 도시사회 이론을 구성하려는 부단한 노력은 사실상 고유한 도시개념의 확립을 둘러싼 것이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독자적인 도시개념을 기반으로 제반의 도시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실상 도시사회 이론의 발전이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물론 이 책의 경우에도 도시, 도시사회학 등에 관한 정의가 적지 않은 곳에서 표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 형식적 정의에 가까운 반면 도시에 관한 실체적 정의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도시론』 속에 서술되어 있는 추상적 개념의 과잉을 지적할 수 있겠다. 물론 이론의 소개와 해석을 주로 하면서 높은 인식론 수준을 취하고 있는 이 책의 특성상 많은 함축적 개념들의 사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충분한 의미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독자의 이해에 상당한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한된 지면에 필요한 많은 개념들을 일일이 정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게 마

련이어서, 이로 인한 저자의 부담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주류와 비주류 논의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인식론적 지평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책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이해의 수준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더 상세한 개념 소개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장병순 jbs66@sdi.re.kr

